

# 투자자문사에 개인자산이 몰린다

## ■ '자문형 랩' 열풍과 안정적 성장 해법

자문형 랩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루면서 쓸림현상이나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금융투자업계가 펀드와 차별화된 자문형 랩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금융 상품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헤지펀드 도입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한국자본시장의 새로운 도약대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자문형 랩은 과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정적으로 성장궤도에 오르기 위한 전문가들의 해법을 들어봤다.

◇수수료 인하 효과 '쏠쏠'=자문형 랩 수수료를 인하한 증권사들이 비교적 쏠쏠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자문형 랩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준은 아니지만, '후발' 증권사들이 잇따라 수수료 인하에 나서고 랩 서비스에 대

로 자산운용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문형 랩은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고객별로 비슷비슷한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제공하고 있어 자금을 한 덩어리로 묶어 운용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펀드와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흥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원은 "자문형 랩 판매과정에서부터 맞춤형 프로세스가 없고,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고객과 소통하면서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작다"며 "금융당국이 자문형 랩 투자설명서의 작성 규범이 조속히 마련된다면 개인별 투자설명서에 기초해 자산이 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이나 증권사가 자산배분과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 상품 선택 폭 넓히고 수수료 인하로 가입 급증

### 주식 쓸림 심해 '묻지마 투자' 위험 경계해야

한 인식도 강화되는 등 후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7일 현대증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자문형 랩 수수료를 내린 이후 사흘간 약 100억원이 순유입됐다. 전전의 하루평균 유입액이 10억 원에 못 미쳤던 것을 감안하면 4~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현대증권은 1.5~3.0%에서 1.0~1.5%로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

미래에셋증권도 이번주 들어 하루평균 자문형 랩 가입액이 약 30% 늘었다고 밝혔다.

'수수료 이슈'가 증권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날 SK증권은 일부 자문형 랩과 일일형 랩 수수료를 50% 내리며 수수료 인하에 가세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자문사별 운용성과와 자체 평가에서 문제가 있는 자문형 랩 상품에는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5개 자문사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며 서비스 강화를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자문형 랩 판매가 호조를 이어가면서 조만간 잔액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펀드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해야=자문형 랩은 펀드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받는다. 고객이 재무상황과 투자목표에 따라 수시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하는 등 직간접적으

로 과도한 고객 유치 부작용 경계=증권사, 자문사가 단기판매와 성과보수에 급급해 상품의 질이나 투자자보호를 고려하지 않고 공격적인 판매에 치중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자문형 랩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이제는 최소 가입금액이 1~3000만원인 자문형 랩 상품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월 최소 적립금액이 10만원인 적립식 투자상품도 등장해 적립식 펀드와 별 차이가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9월 최소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이 1대 1 계약상품인 랩의 개별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1억원 수준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했으나 업계의 반대 의견을 수용해 방침을 철회했다.

랩의 대중화 현상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 김재철 펀드·연금실장은 "랩 상품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에 걸맞게 최저가입한도를 높여서 랩과 펀드 시장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식 쓸림 심해, 위험관리 역량 길러야=자문형 랩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자문사 7공주' '4대천왕' 등으로 불리는 일부 대형 종목이 대박을 떠뜨렸다는 소문이 큰 역할을 했다.

국내 증시가 활황세를 보일 때는 이처럼 국내 주식형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해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지만, 최근처럼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타격이 커질 수 있다.

한 증권사 랩운용부 부장은 "랩 상품의 70~80%는 주식형이나 주식혼합형 상품인데 자문형 랩은 특히나 단기투자성이 강해 주식형의 비중이 더 높고, 투자 종목도 10개 내외로 작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현재 자문사 대부분이 주식운용에 강점이 있어 대체투자 상품에 어두우며, 랩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성과보수에 의존하는 만큼 수익률을 높이려고 분산투자나 선물·옵션 해지 기능 등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문형 랩은 자산시장 도약의 계기=여러 문제점에도 자문형 랩 시장의 눈부신 성장은 고객에게 금융상품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증권사에는 새로운 수익원을 찾게 하는 등 자산관리시장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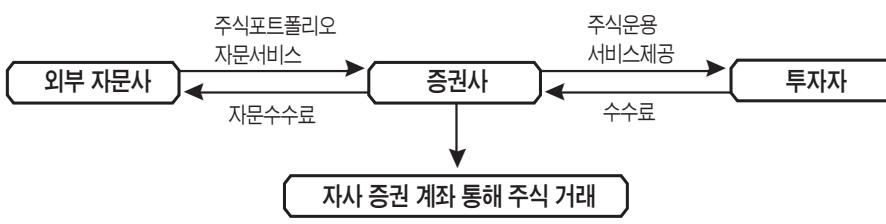
이승우 대우증권 연구원은 "랩은 규제 완화나 상품의 다양성을 상당 부분 수용해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면서 헤지펀드 도입의 초기여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자문형 랩은 증권사가 판매 채널로서 역할을 하고, 자문사라는 외부 전문가가 운용을 담당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는 데 큰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런



지난해 서울 서초동 삼성증권 삼성타운점에서 열린 '삼성증권 자문형 랩 투자 설명회'에 많은 투자자들이 참석해 자문형 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삼성증권 제공>

### ■ 자문형 랩의 구조



식의 개방형 모델이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문형 랩 시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자문사의 운용전문성을 높이도록 자문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증권사는 우수한 재정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 자문형 랩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시장이 커질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연합뉴스

▲자문형 랩=운용사에 큰 폭의 자율권이 부여된 일종의 사모펀드로 자산편집 비율 등에 규제가 있는 펀드와 달리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 채권 등 여러 상품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자문형 랩은 고객 개인의 재무상황, 투자성향, 투자목표 등을 고려해 고객 개인의 명의의 계좌로 금융투자 상품을 운용하고 수수료를 받는 맞춤형 자문관리서비스 상품이다. 자문형 랩은 투자 자문사로부터 조언을 받아 증권사와 고객이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 특징이 있다.

## 우리금융그룹에서 은행장을 모십니다

1. 공모대상 : 우리은행장, 광주은행장, 경남은행장

2. 자격기준 :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 식견과 비전을 가진 분으로서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규정된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분

3. 제출서류 :

- 이력서 1부 (사진첨부, 상세경력 포함, 연락처 명기)  
- 경영계획서 1부 (A4 용지 5매 이내)

4.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 2011. 3. 4(금) 오후 5시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또는 전자우편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100-792) 서울 종로 회현동 1가 203 우리은행B/D 23층  
우리금융지주회사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 사무국  
- 전자우편 : bkkim@woorifg.com

5.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면담 (면담대상자는 개별 통보 예정)

6. 기타

- 경영계획서 표지에 공모대상은행을 기재하여 주시고,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토/일요일은 방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신 분은 제출기한 이전까지 사무국의 수신확인 메일을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 사무국 (02-2125-2073)으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홈페이지(www.woorifg.com)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19일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회사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

## 2011년 2월 4일 SBS 주관 전국동안대회 대상 2011년 2월 24일 SBS 좋은아침 방송 이계남 신비 건강 재활원



### 심근경색 · 파킨슨병 잠수병 · 혈관질환 · 허약체질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운동요법만으로 본인도 놀랄만큼 단 시일내 치유됨!!

062-951-5511 · 016-9578-7777

## ■ 장터 소식

### 등유 공급가격 60원 인하

에쓰오일은 난방용 등유(실내등유·보일러등유)의 공급가격을 ℥ 당 60원 내렸다.

에쓰오일은 18일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달고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주로 서민들이 난방용으로 이용하는 등유를 시장상황에 따라 ℥ 당 최대 60원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정유사는 16일 고유가에 따른 서민 고통을 덜어주고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협력한다는 취지로 서민용 난방유의 가격을 ℥ 당 10~50원 내리기로 했다.

### 해외 농산물 20~30% ↓

신세계 이마트는 고등어, 오징어, 단호박 등 국산 물량이 부족한 신선식품을 캐나다, 대만, 뉴질랜드 등에서 들여와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해외 소싱 농수산물은 국산 같은 품목의 시세보다 각각 20~30% 저렴하다.

이마트는 이상기후로 국내산 신선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고 물량도 부족해져 해외 소싱으로 농수산물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예년보다 어획량이 30% 이상 줄어든 고등어는 국산 일반 고등어보다 2배 큰 캐나다산 자반고등어(800g 앙팎)를 100t 가량 준비해 1순당 5500원에 판매한다.

선동오징어는 대만에서 165t을 직송해 1마리(150g 앙팎)당 740원에 선보이고 뉴질랜드산 단호박은 1개당 1980원에, 미국산 네이블오렌지는 5개당 4480원에 판매한다.

또 이마트는 국내산 돼지고기값이 구제역 영향으로 오면서 수입 돼지고기 물량을 3배 이상 늘려 미국산 냉장 삼겹살을 100g당 1250원에, 프랑스산 냉동 삼겹살을 730원에 판매하고 있다.

### 전세대출이자 1년간 대납

옥션(www.auction.co.kr)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을 100명에게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는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한 '불가 잡는 옥션'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이벤트로 이달 28일까지 진행된다.

옥션 회원 중 제1금융권 대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주점 및 심사를 통해 100명을 선정한다.

이자가 지원되는 최대 대출 금액은 1억원으로, 최대 12개월(2011년 6월~2012년 5월)간 옥션이 직접 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한다.

### 매일 14개품목 특가 판매

G마켓(www.gmarket.co.kr)은 생필품 가격 경쟁으로 인한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27일까지 물가잡기 프로젝트 '더큰세일'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기저귀, 분유, 쌀, 라면 등 물가 상승에 민감한 생필품을 매일

## 정품! 정량!! 난방유 SK 삼보주유소

마일리지카드 발행

(인적사항 기재 없음)

### 명품 외부 세차! 깔끔 내부 세차!

### 차량 무료점검 서비스 시행

Speed Mate와 업무제휴

### 난방유 할인판매

- OK로고 있는 전 카드 할인혜택
- 한드럼당 4천원~6천원 할인
- OK캐쉬백적립

산수오거리에서  
지산(법원) 큰사거리 지나 200m 우측

062-224-5189

011-666-7899